

### 활안 스님과 백혈병 최재승군의 '특별한 만남'

## “처음 그 마음 놓치지 마세요”



활안 스님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최재승 군을 돕기 위해 구성된 익산불교시민연합회 회원들의 요청으로 법문을 하면서 재승군의 쾌유를 기원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춥다던 1월 9일, 순천 조계산 천자암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최재승(남성고 2) 군을 돕기 위해 탄생한 익산불교시민연합회가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을 찾았다. 새해를 맞아 활안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청해듣고 재승이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서였다. 천자암 법당에 모인 40여명의 불자들은 법문에 앞서 활안 스님이 주재하는 다라니 정전에 동참했다.

### 익산불교시민연 만남 주선 새해 법문 듣고 쾌유 기원

“천지자연의 기본은 마음이며 마음중심이 바로 서야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단박에 밝아집니다. 처음 생각이 바로 밝은 마음으로 성불에 이르게 하는 밑받침이 됩니다. 처음 그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활안 스님은 새해 법문을 통해 내내 초

발심을 강조했다. 재승이를 앞에 두고 초발심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승이는 작년 5월 갑자기 쓰러져 재생 불량성 빈혈(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병과의 힘든 싸움을 이어왔다. 다행히 항암치료도 마치고 끝수이식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막대한 치료비로 최 군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말았다.

익산불교시민연합회는 재승이를 돕기 위해 지난 12월 9일 탄생했다. 이리불교대학을 졸업한 재승이 부모의 동문들이 주축이 됐다. 각 사업은 물론 사회단체, 학교 등을 돌며 치료비를 보시받았다. 12월 29일, 재승이 돕기 일일차집을 가졌다. 십시일반으로 3500만원이 모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1억원 가량 들어가는 치료비에는 어렵도 않다.

재승이와 익산불교시민연합 회원들은 활안 스님의 '초발심'을 강조한 법문에 힘을 얻었다.

재승이를 살리겠다는 첫 마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분명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 것이다. 후원 모금 : 기업은행 182-001714-01-055(예금주: 박중근) 연락처 : 익산불교시민연합 회장 김중근 011-442-3055

이준엽 기자

### 광주불교사암련 '성도절 기념법회'



### 포교상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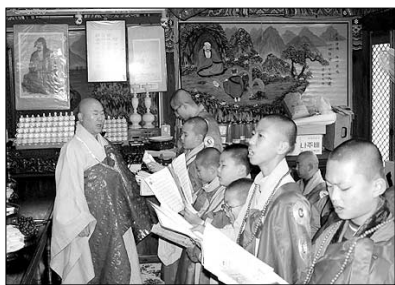
광주불교의 화합과 정진을 다짐하는 '성도절 기념 특별법회' (사진)가 1월 12일 광주 KT 정보통신센터 대강당에서 봉행됐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광)가 마련한 이날 법회에는 광주지역 사암 스님과 박광태 광주시장, 양형일 국회의원 등 지역기관장, 재가불자 1000여명이 동참했다.

조청법사로 법상에 오른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은 “나 라는 아난과 아리석음, 나 라는 애착과 욕구를 떨쳐 우주가 곧 자신요, 자신이 바로 우주인 도리를 바로 알자”고 법을 설했다.

이어 광주사암련 회장 혜광 스님은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불교발전에 앞장선 (사)한국여성불자회 광주지부(지부장 유혜월)에 단체상, 이병욱 전남 경찰청불자회장, 김창배 광주 서부경찰서불교회장, 이관희 광주교도소 주임에게 개인상을 각각 수여했다.

이준엽 기자

### 구오사미들, 묵담 스님전에 음성공양



### 담양 옹화사, 추모법회서

태고종 종정을 역임한 묵담 스님 열반 25주기를 맞아 구오사미들이 찬불가 음성공양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묵담 스님 추모법회는 1월 8일 옹화사주지 수진 대웅전과 조사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해동출사 수진 스님, 선암사 주지 상병 스님, 관음선원 주지 묘희 스님 등

문도회 스님, 구오사미승, 재가불자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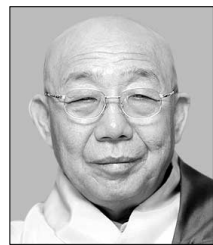
이날 구오사미들은 묵담 스님 영전에서 '하얀세상 부처님세상' '왕생극락하옵소서' 등 찬불가를 공양했다.(사진)

옹화사 주지 수진 스님은 “묵담 스님께서 평소 동자승들을 애뜻하게 보살폈는데 이번 기일에 구오사미들이 음성공양을 올리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구오사미는 절에서 음식을 나르거나 까마귀를 쫓는 어린 사미로 지난해 옹화사에서 처음으로 16명이 탄생했다. 이준엽 기자

### 인터뷰

### 대전사암련 17대 회장 만다스님 “자비·복지불교 이룰 터”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생각입니다.”

1월7일 대전 오페라 웨딩홀에서 열린 대전사암련 신년하례법회에서 17대 회장에 취임한 만다 스님(통도사 대전포교원 불교대학장·용수사 주지)은 화합을 바탕으로 대전불교를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만다 스님이 구상하고 있는 대전불교 발전방안은 불교복지회관 건립, 계층포교 활성화, 스님들의 시대감각 제고, 군 포교 및 재소자 포교의 지속적 확대 등이다.

먼저 불교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 만다 스님은 “아직까지 대전에 불교회관 하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비불교 복지불교를 이루기 위해 불교복지회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각종 수련회와 장학사업 등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통해 대전불교의 뿌리를 심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 해남사암련 신년기원법회

해남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신년기원 법회'가 몽산 대흥사 주지를 비롯한 관내 사암 스님과 박희현 해남군수, 정진석 해남군의회 의장, 김재현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등 지역 기관장, 신행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7일 해남 관광호텔에서 봉행됐다.

이날 해남사암련 회장 몽산 스님은 법에서 “요즘처럼 어려운 때 일수록 탐욕을 버리고 이해와 화해로 희망의 새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준엽 기자

### 불교전통의식 합동교육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학장 해공) 이하 불교의식대학이 불교의식 합동교육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다.

광주 불교의식대학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사물다루는 법을 비롯해 점안의식, 상주권공신주작법 등 불교의식 전반에 걸쳐 펼쳐진다.

불교 전통의식 전수를 위해 직접 강의를 맡고 있는 불교의식대학장 해공 스님(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이수평가자)은 “불교의식은 불교의 성보문화재이자 세계적인 우리 문화이다”며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의식대학은 합동교육과 함께 제 7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062)362-8604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 서울 정토사

## 정토구현 위해 모두가 한마음



정토사 신도들은 지난해 11월 건봉사 순례법회를 갖고 염불만일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금강산이 시작되는 남한의 첫줄기 건봉사에서 신라시대 발징화상이 처음 열었던 염불수행 결사인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 건봉사가 염불만일회의 중심도량이라면 서울 정토사는 염불만일회의 정신을 잇고 있는 염불만일기도도량이다.

정토사는 염불만일회 법주인 철산 스님이 염불수행정진을 위해 40년 전 창건했다. 그 후 신도들과 함께 염불정진에 몰두하면서 정토사를 염불기도도량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다. 염불수행을 하려는 불자들이 많

상 2층의 150여 평 규모로, 60평 크기의 법당을 비롯해 천불전, 염불당, 요사채 등을 갖추게 된다.

신도들의 노력에 주지 응천 스님도 화답하고 나섰다. 현재 응천 스님은 새로운 사찰 운영 프로그램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신도들과 함께 정토사를 전국적인 염불기도도량으로 가꾸겠다는 각오로 밤낮이 따로 없다.

현재 구상중인 사찰 발전방안은 정토불교대학 개원, 봉사회 조직, 신도회 조직 재편 등이다.

“명실상부한 염불기도도량이 되기 위해서는 염불기도의 기본인 정토사

### 중창불사 통한 염불기도도량 자리매김

### 불교대학·봉사회 조직 등 발전방안 마련

아졌는데, 이를 수용할만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30평 남짓한 법당으로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 철산 스님의 상좌인 정토사 주지 응천 스님의 고민도 깊어졌다.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이때 신도들이 중창불사를 하자고 나섰다.

이진선·현정원 거사, 고반야행·장법계월·맹보리화 보살 등 주축신도들의, 정토사를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불심이 신도들 사이에서 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올 4월 이후 본격적인 중창불사에 돌입하게 됐다. 완공은 내년 상반기가 목표.

새로 태어날 정토사는 지하 1층 지

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수행과 공행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역동적이고 조직력을 갖춘 신도회를 구성함으로써 신도들의 신행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스님들이 노후걱정 없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복지시설도 건립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응천 스님은 지난해부터 염불만일결사 정진에 들어갔다. 스스로를 체질적이고 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다. 자신은 별로 하는 것이 없다고 겸손해하지만 표정에서는 자신감이 묻어난다. (02)396-3405 한영우 기자

# 대한민국에 '불교천문대' 를 세웁시다

## 제 2회 불교어린이 천문학교실 안내

- 마음(상상력)이 큰 어린이들이 천재다 -

부모님들께 우리 어린이들은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이 순수하기 때문에 나오는 힘입니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첨단과학인 천문학을 통해 저 광대무변한 우주를 바라보게 하여 도솔천·도리천·사용천 등 불교경전에 나오는 여러 하늘나라를 우주 속에서 찾게 해줍니다. 또 이 별 저 별을 마음껏 쏘다니게 하여 호연지기(浩然之氣)

- 기 간 : 2005년 1월 19일(수)~1월 21일(금) - 2박 3일 (1월 19일 11:00까지 도착, 점심공양은 수행원에서)
- 장 소 : 도피안사 내 「파라미터수행원」
- 교육비 : 100,000원(1인당, 교재비 포함)
- 인 원 : 약50명 (접수 순에 의함, 단 보호자와 함께 하는 경우 우선)
- 대 상 : 초등생(4, 5, 6학년)과 그 어머니 (중·고생 및 일반도 가능)
- 천체관측 : 별, 달, 행성
  - ① 밤 별 보기 - 19:00 ~ 23:00
  - ② 새벽 별 보기 - 04:00 ~ 06:00
- 강 의 : '별의 세계와 불교의 우주관'
- 비디오 감상 : '우주의 신비'
- 지 도 : 이시우 박사(관측천문학, 前 서울대 교수)
- 교통편 : 어머니(보호자)와 함께 개별도착 (당일 오전 11시까지)

를 길러주며, 수십 년 수행하여 얻은 것보다 더 큰 '열린 마음'을 우주의 별을 보며 깨닫게 합니다. 나라의 앞날과 인류의 밝은 미래는 오직 마음이 큰 그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번 제2회 <불교어린이 천문학교실>을 놓치지 마세요. 천문학은 인간교육의 근본인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천문학교실은 엄마와 함께 해요.

- 담 당 : 해관거사 박성근(도피안사 사무장)
- 준비물 : 방한모, 장갑, 양말, 방한화 (천체관측 때 춥지 않게)

\* 날씨에 따라 교육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피안사의 관측기기 및 시청각교육 기자재 구비사항

망원경 구경 220mm, 쌍안경 배율 15 · 구경 80mm  
환등기, 스크린, O.H.P, DVD 플레이어, LCD 프로젝터  
전자시시봉 등 시청각기자재 완비

- 연락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성리 1178-1

전화 : 031)676-8700 / 전송 : 031)676-8704

홈페이지 : http://www.dopiansa.or.kr

E-mail : dopiansa@komet.net

\* 교육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은 2005년 1월 15일까지입니다.